

60세 이상에서 시행한 신장이식과 젊은 수혜자에서 시행한 신장이식의 예후 비교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¹,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²

조형진¹, 김효상¹, 백충희¹, 유훈¹, 신은혜¹, 한덕종², 박수길¹

Renal Transplantation in Aged Over 60 Years Demonstrates Compatible Clinical Outcomes to Younger Recipients

Hyungjin Cho¹, Hyosang Kim¹, Chunghee Baeck¹, Hoon Yu¹, Eunhye Shin¹, Duck Jong Han², Su-Kil Park¹

University of Ulsan, College of Medicine, Asan Medical Center, Division of Nephrology¹

University of Ulsan, College of Medicine, Asan Medical Center, Department of Genreal Surgery²

연구목적: 한국에서 신대치 요법을 시작하는 환자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고령환자에서 신장이식은 아직 활발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. 이 연구에서는 노인환자에서 신장이식의 성과를 20-59세 환자에서 신장이식의 성과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.

연구방법: 199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신장이식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수여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와 신장 이외의 다른 장기를 수여자가 이식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.

결과: 총 3205건의 신장이식 중 2535건이 생체 장기 제공자 신장이식 이었고, 670건이 뇌사자 이식 이었다. 이식 신 생존률은 생체 장기 제공자 신장이식과 뇌사자 이식 모두에서 60세 이상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, 사망을 중도절단 사건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이식신 생존률은 20-59세 환자와 60세 이상 환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표준화사망비는 60세 이상군이 20-59세 환자보다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. 수혜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것이 생체 장기 제공자 신장이식에는 이식신 이 반감기에 도달하기 전에 기능을 상실할 위험인자였으나, 뇌사자 이식에서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.

결론: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신장이식은 20-59세 연령군과 비교하여 이식 신 생존률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. 따라서 노인층에서 신장이식을 신대치 요법의 한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.

Key Words: 신장이식, 노인

Geriatrics, Transplantation, Graft surviva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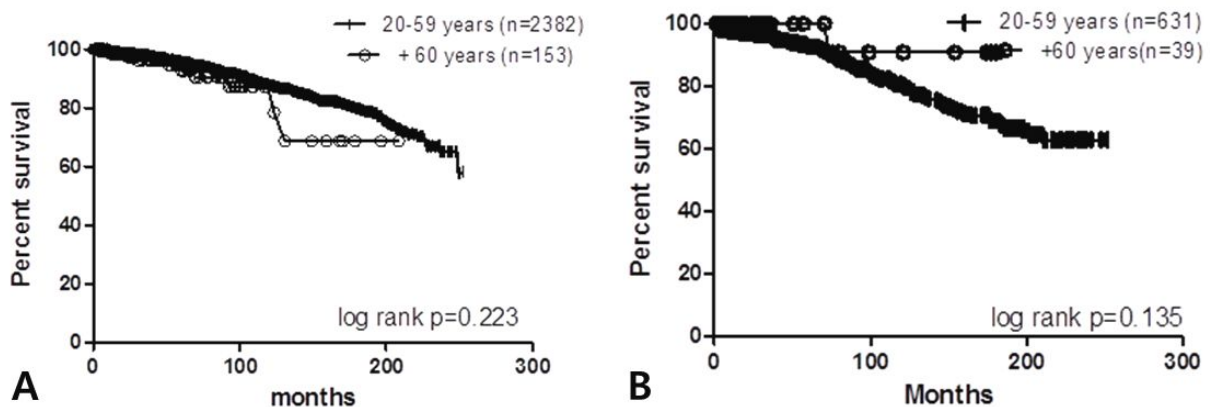


Fig. 1. Death censored graft survival in (A) living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and (B) deceased donor kidney transplantation.